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6> 어느 것이고 병 아닌 것이 없다

훌륭한 의사가 병을 치료할 적에는 먼저 병의 근원을 찾으니, 병의 근원을 알아야 비로소 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선하는 수행자가 도타운 믿음으로 오가며 앉고 눕는 삶 속에서 온 힘을 다하여 화두를 챙겨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 생사의 도리를 밝혀 내지 못하는 까닭도 대개 그 근원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 해 스무 해를 선방에서 흘려보내고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큰스님', '종사(宗師) 스님'이라고 부르며 가르침을 청한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법문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본디 말과 글로 부처님의 법을 희롱하지 않고, 평상시 생활 속에 쓰고 있는 마음자리를 돌이켜서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참뜻을 얻게 하려는 것이 종사 스님의 역할인데 이 스님이 생사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선가귀감> 76장에서 말한다.

宗師 亦有多病 病在耳目者 以瞠眉努目 側耳點頭 爲禪 病在口舌者 以顚言倒語 胡唱亂喝 爲禪 病在手足者 以進前退後 指東畫西 爲禪 病在心腹者 以窮玄究妙 超情離見 爲禪 據實而論 無非是病.

종사에게도 병통이 많다. 눈과 귀에 병이 있는 이는 눈을 부릅뜨거나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끄덕이는 것으로 선(禪)을 삼고, 입과 혀에 병이 있는 사람은 횡설수설 두서없이 지껄이고 함부로 할! 소리 지르는 것으로 선(禪)을 삼는다. 또 손발에 병이 있는 이는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며 이쪽저쪽 아무 데나 가리키는 것으로 선(禪)을 삼고, 마음속에 병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찾기 위하여 번뇌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으로 선(禪)을 삼는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어느 것이고 종사의 병통 아닌 것이 없다.

종사(宗師)는 부처님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선종(禪宗)의 종지(宗旨)를 체득한 큰스님을 가리킨다. 부처님 마음을 전하는 스승으로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훌륭한 방편으로 제자들을 맞이하여 그들의 근기에 맞추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종사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경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경사(經師)가 되고, 부처님의 생활을 그대로 실천하니 율사(律師)가 되며 경장(經藏)과 율장(律藏)을 걸림 없이 쉽게 풀어내므로 논사(論師)가 된다. 그러므로 종사는 경율론 삼장(三藏)의 종지를 체득한 삼장법사이며 학덕을 겸비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큰스님이다.

옛날에 종사 스님들이 후학들을 다룰 때는 상대방의 근기와 주변 상황에 따라 눈을 부릅뜨거나 머리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할! 하고 큰 소리를 내지르기도 하였다. 주장자로 선상을 내려치기도 하고 몽둥이로 매질을 하기도 하며 멱살을 잡고 꼼짝 못하게 몰아붙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본지풍광(本地風光)에서 일어나는 임시방편이다. 그러므로 조주 스님은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자면 무수히 많은 법이 생기게 되나, 나는 이 자리에서 그저 본분사(本分事)로만 사람을 대할 뿐이다

조주 스님이 말하는 '본분사(本分事)'는 '본지풍광'을 바탕으로 삼고서 하는 일을 말한다. '본지풍광(本地風光)'에서 '본지(本地)'는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부처님의 마음자리이고, '풍광(風光)'은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가리킨다. 옛 조사 스님들이 쓰는 독특한 '할!'이나 '몽둥이질'과 같은 법도 알고 보면 그 밑바탕에 본지풍광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본지풍광을 모르는 어리석은 종사들은 '할!'이나 '몽둥이질'과 같이 드러난 표현에만 집착한다. 그것이 본지풍광에 다가가기 위한 임시 방편인줄 모르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라고 착각한다. 그리하여 방편에 얽매여서 알음알이를 낸다. 근본을 모르고 곁가지에 집착하여 그것이 부처님의 옳은 법이라고 시비하고 분별하게 된다.

선종에서는 부처님의 근본을 몰라서 곁가지에만 집착하고 시비와 분별을 일삼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시비와 분별이 바로 생사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시비와 분별이 심하면 심할수록 중생의 번뇌는 늘어난다. 조사 스님들은 중생의 이런 잘못을 바로 보시고 단숨에 이를 고쳐 주고자 한다. 그래서 본래 면목인 '본지풍광'에 임시방편으로 갖다 붙인 이름이나 허상에 얽매여서 알음알이를 내지 말고 그 근본 바탕을 보라고 가르친다. 그 근본 바탕에 마음을 맞추어 그것과 하나가 되라고 한다. 근본과 하나가 되어 근본이 사라지고 내가 사라질 때 주객이 사라지고 모든 시비와 분별이 끊어진다. 시비와 분별이 끊어진 마음에서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드러난다. 시비와 분별이 사라진 그 근본 바탕에서 세상의 모든 법이 부처님 법이 된다. 조사 스님이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조사 스님이 된다. 이 자리에서는 모든 법을 드러내거나 없앨 수도 있고 모든 법을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종사들은 이 근본 뜻을 모르고 옛 조사 스님의 겉모습을 흉내 내어 시비와 분별을 일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殺父母者 佛前懺悔 謗般若者 懺悔無路.

부모를 죽인 사람은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하나 반야지혜를 헐뜯는 이들은 참회할 길이 없다.

대혜 스님은 <서장>에서 "예전에 성인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야 할 것이 어떤 도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어찌 눈을 깜빡이는 헛된 짓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억지로 나의 도를 끌어다가 하나로 꿰어 맞춰서는 안 됩니다. 모름지기 스스로 믿고서 깨달아야 합니다. 설하는 내용을 듣기만 해서는 끝내 어디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 스스로 보아야 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며 스스로 믿고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리를 설명하거나 그려낼 수 없어도 깨닫는데 가로막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설명해 낼 수 있고 모양을 그려낼 수 있다 해도, 이것은 오히려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 깨치지 못한 자를 다만 걱정할 뿐입니다. 세존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반야를 헐뜯는 사람'이라고 하며, '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더라도 참회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종사라고 하면서 생사의 근원을 알지도 못한 채 법을 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할'을 한들 '방'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空中撮影非爲妙 物外追 蹤豈俊機.

허공에서 그림자를 붙잡는 일도 우스운 일인데 세상 밖에서 헛된 자취를 좇는 사람들이 무어 그리 대단할까?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어리석은 종사자들은 '할!'과 같은 표현에만 집착
근본 모르고 곁가지에 집착하면 시비 분별하게 돼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열반(涅槃)

열반은 산스크리트어 nirvana의 음역이다. 멸(滅) 적멸(寂滅) 멸도(滅度) 적(寂)이라 번역하기도 한다. 해탈 등과 같은 뜻의 말로 쓰인다. 반열반은 산스크리트어 pari의 음역으로 완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원적(圓寂)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열반으로 번역된 니르바나의 뜻은 '불어 끈다'이다. 불어 끈 상태, 곧 타오르는 번뇌의 불을 말끔히 없애서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를 완성한 경지를 말한다. 이것은 생사를 넘어선 깨달음의 세계로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목적이다. 그래서 불교의 특징을 나타내는 삼법인의 하나로 '열반적정(涅槃寂靜)'을 세우게 된다.

부파불교에서는 열반을 번뇌를 멸해 없앤 상태라 하고 여기에 유여열반(有餘涅槃)과 무여열반(無餘涅槃)의 두 가지 열반을 세운다. 유여열반은 번뇌는 끊었지만 육체가 아직 있다는 의미. 무여열반은 모든 것이 다 멸해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 경우를 가리킨다.

대승불교에서는 열반을 적극적인 것이라 생각하여, 상락아정의 사덕을 갖추지 않은 소승의 열반을 유위열반이라 하고, 상락아정의 사덕을 갖춘 열반을 무위열반이라 했다.

또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나타난 불타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체의 죽음을 열반 반열반 대반열반이라고 하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입열반, 입멸, 신진화멸(薪盡火滅)이라고 한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8>

세계관

이 세상은 유한할까, 무한할까?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그 대답은 침묵이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문에 매달리는 것이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까닭이었다.

부처님은 우주나 인간의 근원과 소멸에 대한 질문에 직설적으로 답하지 않는 대신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부터 차분히 관찰하고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나갔다. '현실'을 탐구의 최초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현실'이란 우리에게 '인식'되는 세계여야 한다. 아무리 광대무변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타당하게 인식될 수 있는 세계만을 현실적 존재로 보고 이를 관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의 현실은 인식의 주체인 인간과, 인식의 대상인 자연으로 되어 있다.

부처님은 인간에게 여섯 개의 감각 주체[六根:眼, 耳, 鼻, 舌, 身, 意]가 있어서 세상을 인식하며, 세상에는 이에 대응하는 여섯 개의 인식대상[六境:色, 聲, 香, 味, 觸, 法]이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 열두 가지[十二處]가 현실 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一切]이라고 설했다. 이를 '십이처설(十二處說)'이라고 한다.

육근과 육경으로 이루어진 십이처에, 육근과 육경을 연(緣)으로 하여 생긴 육식(六識: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을 합하면 열여덟 가지 경계(境界)란 뜻의 십팔계(十八界)가 된다. 일체 법을 다 섭수(攝收)한다고 할 때, 십이처만 말할 때도 있고 육식을 포함해 이 십팔계를 일컫기도 한다.

인간중심상담도 부처님과 비슷한 견해를 가진 현상학적 이론을 바탕에 두고 있다. 현상학은 실제적 세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인간이 그 존재를 직접 알거나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적 세계란 인간의 세계에 대한 자각의 기초에서부터 유추된다는 이론이다. 이 자각이란 것이 각 개인의 '현상학적 장(phenomenal field)' 또는 현상학적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인간이란 그 현상적 세계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실제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가 세계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주관적 지각에 의해서 행동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동은 행동하는 순간 그에게 일어나는 지각의 장의 함수"라고 본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부처님은 우주에 관한 직설적 답 대신 현실부터 관찰
인간은 자신의 경험 불일치에서 심리적문제 안게 돼

늙은 말이라 쓸 데 없다 하여/보리껍질 먹이까지 빼앗겼나니/아들이란 귀여워하고 사랑할 것 아니요/구부러진 지팡이가 제일이로다./나를 위해 사나운 소 막아주고/험한 곳을 면하여 편안하게 해주네.

(634호 '17-게송' 앞부분에서 누락된 게송입니다.)

그림 : 문병성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들일수록 꼭 읽어야 할 인생 지침서

지욱(智旭) 선사 지음
이둔(理屯) 박태섭 역주
신국판 양장본 944면
값 75,000원

부처님의 눈으로 주역의 도를 읽고
주역의 눈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본 『주역선해』,
유불선을 30년 동안 연구한 이둔 박태섭 선생이
7년여의 노력끝에 내놓은 역작

공자가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끊어지도록 탐독하였다는 주역은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가 담긴 동양철학 분야의 가장 오래된 고전이다. 이 책 주역선해는 명나라 4대가 중의 한 분으로 존경받는 지욱 선사가 유식(唯識), 천태학, 선(禪) 등 해박한 불교지식을 총동원하여 불교적인 입장에서 해석한 의리역(義理易)의 명저로 불교와 유교 양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로 주역이 안으로는 성인의 마음을 밝혀가며 밖으로는 제왕의 정의로운 통치를 돕는 것이라면 주역선해는 거기에다 깨달음의 영성(靈性)을 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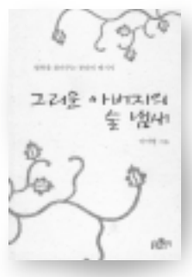
"『주역선해』는 워낙 난해하고 방대해 유불선에 통달했던 탄허 스님만이 토를 달았을 뿐, 일반인을 위한 번역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에는 무려 1262개의 상세한 역주를 달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돕고 있다. 탄허 스님의 제자인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추천사에서 이 책에 대해 '진짜 우담바라 꽃이 핀 것과 다름 없는 경사'라고 평했다"
– 한겨레 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국경제, 연합뉴스, 매일경제, KBS 등

이둔(理屯) 박태섭 – 1957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밀양박씨 청재공파(淸齋公派)의 22세손으로 15세부터 송화산, 송을산, 김주당으로 이어지는 한학의 계보를 이어받았다.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서강대에서 종교학을 전공하였다. 코리아 헤럴드에서 전임강사를, 전 세세정보통신(주)에서 이사를 역임했다. 대표저서로 『주역을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소설 기문둔갑』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원시불교』, 『고전인도논리철학』, 『도인』, 『불교심리학』, 『고타마 붓다의 생애』, 『카발라』, 『기하학의 신비』, 『무위경영』, 『리보위초를 위한 찬가』 등이 있고, 논문으로 「중국종교사의 철학적 해석을 위한 탐색」 외 10여 편이 있다. 이 책 주역선해는 유불선 경전 탐구 30년, 번역과 상세한 각주에 7년의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맺은 결실이다.

한광수 도서출판

– 행복을 찾아주는 붓다의 메시지

그리운 아버지의 술 냄새



이미령 지음
4 · 6판 232면
값 7,000원

경전의 바다에서 낚아 올린
생생한 부처님의 말씀으로 삶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저는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이 책의 지은이가, 달도 별도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밤의 울퉁불퉁한 골목길을 앞장서서 가면서, 초롱불을 비춰 주며 행복이라는 집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말로 이 책의 내용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 소설가 한승원

불광출판사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

월간 불광을 만나면
삶이 밝아집니다

33년 한결같은 도반 월간 「불광」은
우리의 일상을 빛으로 밝히며,
우리 시대의 밝은 횃불이 되어왔습니다.

http://www.bulkwang.org

1 년 구독료 : 38,000원
2 년 구독료 : 70,000원
3 년 구독료 : 100,000원

구독문의 02) 420-3200 팩스 02) 420-3400
e-mail : webmaster@bulkwang.org

송파구 석촌동 165-14, 전화 (02)420-3200, http//www.bulkwang.or.kr